

# 책임감 · 신뢰감 높이는 '출판실명제' 바람

## 편집 · 교정자에서 제작업소까지 밝혀... 제작부수도 공개

90년대 정국에 가장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변화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를 꼽을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때마다 대상자의 70% 이상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실명제' 분위기는 이제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불러일으키며 자리매김에 성공하고 있다.

출판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근대 출판이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하면서 독자들에게 밝히는 내용은 발행인과 저자, 초판 발행일, 출판사 연락처 등이 고작이었다. 책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판권사항'은 독자들에게 그저 깨알같은 글씨로 찍어진 '책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출판계에도 '출판실명제'를 표방하는 출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출판사들은 편집, 교정, 디자인, 전산 등 책의 제작에 참여한 모든 직원의 이름에서부터 전산사식, 제판, 본문인쇄, 표지인쇄, 제본 등 제작업소의 전화번호까지 기재하고 있다. 드물게는 판권에 발행부수까지 공개하는 출판사도 등장하고 있다.

### 편집 · 제작진의 학력 · 경력도

최근 '출판실명제'라는 용어에 걸맞은 파격적인 공개로 시선을 끄는 출판사는 일본어뱅크사(대표 조병희). 이 출판사는 지난 6월 일러스트인인 《일본어뱅크 일본어회화》를 출간하면서 판권에 발행부수 및 발행인에서부터 편집, 디자인, 마케팅, 업무 등 전직원 12명의 이름과 최종학력, 얼굴사진까지 수록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전산사식, 제판, 인쇄, 제본 등을 담당한 거래업체의 대표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수록해 출판실명제의 가치를 올렸다. 특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어뱅크사의 이번 발행부수 공개는 출판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제작진의 이름과 상세한 경력을 수록해 처음 화제를 모았던 출판사는 새로운 사람들(대표 이수구). 이 출판사는 책의 끝부분에 2페이지 정도를 할애해 제작의 최종책임자가 과정을 소개하는 '후기' 형식의 글과 제작진의 자세한 경력사항까지 기재하는 등 출판가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판권에 기재하기로는 현암사(대표 조근태)가 가장 20 출판저널

### 최근들어 '판권사항'에 편집 · 교정 ·

### 디자인 · 전산 등책의 제작에 참여한

### 모든 직원의 이름에서 전산사식, 제판,

### 인쇄제본 등 제작업소의 전화번호까지

### 기재하는 등 이른바 '출판실명제'를

### 표방하고 나선 출판사들이 늘고 있다.

### 이는 책임있는 출판, 독자에 대한

### 신뢰도와 제작진의 보람 상승 등

###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신선한 시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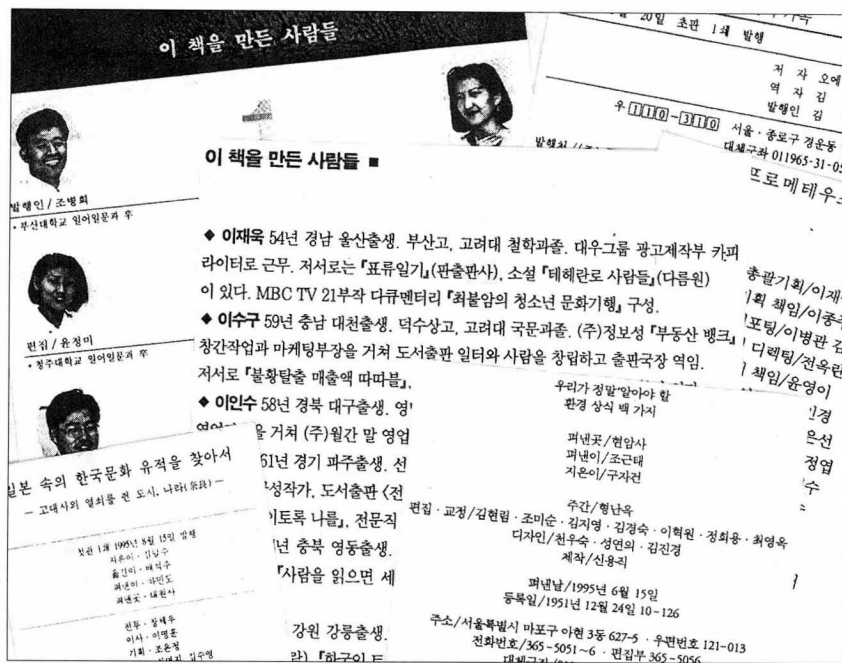
### 받아들여지고 있다.

래된 경우, 현암사는 오래전부터 제작진의 이름을 판권에 포함시켰으며 지금도 편집, 디자인, 교정 등 각 분야의 직원들 이름을 명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려원(대표 김낙천), 대원사(대표 차민도) 등도 해당 서적 제작에 참여한 편집책임자, 표지디자이너 등의 이름을 기재하고 있다.

"다른 출판사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속살을 내보이는 것 같은 부끄러움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떼뻑히 공개하는 것이 독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람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어뱅크사의 이기선 편집장은 직원들 스스로가 책을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 일단 가장 큰 수확이라고 덧붙인다. 출판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몇 출판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직원들과 독자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이다. 출판실명제의 효과를 종합해 보면 대략 네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효과는 책임있는 출판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책의 이력을 되돌아보면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관행은 무엇인가 감추려는 의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신문광고에 발행부수를 과장해 독자들을 현혹시킨다든지 저자나 역자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거나 가명을 쓰는 부끄러운 출판물이 흔하게 눈에 띄는 세대 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악용되기도 함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작진들의 실명을 밝히는 경우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책임감이 높아져 출판문화를 병들게 하는 부실출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



'판권사항'에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까지 밝히는 등 출판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선보이고 있다.

어 들 수 있다.

두번째로 꼽을 수 있는 효과는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포장상자에 생산자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한 농산물에 더욱 믿음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볼 수 있다.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독자들에게 일단 합격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판권에 제작진 전원의 이름과 약력을 기재하고 있는 새로운사람들의 이수구 대표는 "독자엽서나 전화를 통해 신뢰감이 생겨서 좋다는 의견을 밝히는 독자들이 종종 있다"고 효과를 설명한다.

세번째 효과는 제작진들의 책임감과 보람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직원들의 얼굴까지 수록하는 일본어뱅크의 경우 "직원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은 물론 다른 출판사에 비해 이직율도 낮다"고 한다. 결국 책을 기획하고 만들고 판매하는데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의식을 심어주는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네번째는 사식 인쇄 제판 제본 등을 맡아서 하는 거래업체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가는 책은 아무래도 신경써서 만들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홍보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해당 업체들의 중론이고 보면 거래처와의 관계유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듯하다.

### 출판실명제는 해외에서도 드문 일

이처럼 책의 이력을 낱알이 공개하는 경우

는 외국에서도 드물다. 일본의 경우는 국내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행인 · 저자만을 밝히고 있으며, 인쇄처 제본처 등을 기재하는 정도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책은 종류와 출판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디자이너, 북카피라이터 등을 명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일서에 비해서 자세한 편에 속한다. 유럽의 경우 역시 발행인 · 저자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소개하는 책이 많다.

물론 판권에 책의 이력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의무조항이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출판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실행될 문제이다. 일본어뱅크사의 경우를 놓고 "직원들의 사진까지 책에 수록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출판관계자들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몇몇 출판사의 '튀는 행동'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 상징성과 신선한 반향이 크다. 신문지면이나 TV뉴스를 통해 종종 들려오는 '가명' 이니 '차명' 이니 하는 말보다는 '실명'이라는 정직한 말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 주듯, 출판계에도 앞에서 열거한 이른바 '출판실명제'가 아니더라도 독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노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때다. 그것이 불황타개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연 기자